

마약투약 절반 이상 ‘집행유예’... “고통만 남는다는 인식 심어야”

마약범죄 특수본 회의 개최...해경·국정원 등 참석

마약 수요의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 차원서 마련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합류...974명으로 확대

마약 투약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 수요가 늘면서 공급도 함께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투약사범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검찰은 경찰·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청·국정원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재억 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관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마약 수요의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수본 공동본부장을 맡은 박 부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마약 투약도 민생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투약 사범에 대한 판단한 시각이 경각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마약 범죄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한 공급 조직만 교체될 뿐 마약범죄 자체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마약 문제를 그리 심각하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으나 각종 통계가 보여주듯, 그리고 사회 현상에서 느낄 수 있듯 마약 문제는 심각하다.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 최대한 엄벌을 내림으로써 이익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만이 남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건 당연하다”며, “이 땅에서 마약을 끌어내리는 사범에 책임을 느끼며 마약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마약사범은 5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07명 대비 29.7%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투약사범은 전체 55.2%, 공급사범은 30.7%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은 2035명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해외 ‘직구’ 등으로 손쉽게 마약에 접근한 10대 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나 늘었다.

이에 마약 공급만큼 마약 수요에 대한 억제와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판결이 확정된 투약·단순소지 사범 146명의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가 전체의 51%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약 사범에 대한 판단한 시각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유명 음악 프로듀서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는 필로폰을 14차례나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또 최근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는 코카인부터 케타민, 대마, 프로포폴 등 200여회 상습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처음 적발된 투약사범에 대해서도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을 원칙으로 세웠다. 또 단순 투약사범도 재범 이상인 경우, 원칙적



박재억 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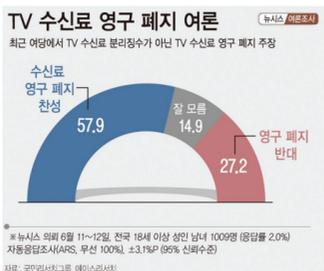
법원이 투약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검찰이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 대검찰청은 군 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이 매년 폭증함에 따라 군검찰·군사경찰과 합

동으로 총 141명의 군 수사인력에 대해 마약수사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마약범죄 특수본에는 전방위적인 대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이에 마약 전담인력은 기존 840명에서 974명까지 확대됐다.

‘TV 수신료’ 영구 폐지...찬성 57.9% vs 반대 27.2%



국민 10명 중 6명이 TV 수신료 영구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TV 수신료 영구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57.9%, 반대 27.2%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84.1%, 반대 7.4%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반대(45.7%)가 찬성(37.3%)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하면서 여야 지지자들의 반응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5일 전기요금에 같이 징수되던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분리 징수가 아닌 영구 폐지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KBS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압박하며 “국민의 준엄한 ‘수신료 분

리 징수’를 또다시 국악이세할 경우 분리징수가 아닌 수신료 영구폐지 운동을 강력히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에서도 TV 수신료 영구 폐지에 찬성한다(49.2%)는 응답이 반대한다(29.1%)보다 20.1%p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67.6%) ▲대구·경북(61.0%) ▲대전·충청·세종·강원(54.9%) ▲서울(55.3%) ▲광주·전라·제주(36.3%) 등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반대보다 높았다. 성별·연령별로도 전 층에서 영구 폐지 찬성이 반대 의견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동취재본부

순천 초등학교, 흑두루미 먹이용 쌀 ‘손 모내기’

인안초 전교생 등 200여명 흑두루미 영농단지서 구슬땀

순천시 인안 초등학교(교장 강기만) 학생들이 14일 순천만 희망 영농단지에서 흑두루미 먹이용 쌀 생산을 위해 손 모내기를 했다. 인안초 전교생 106명을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순천시 관계자와 순천만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흑두루미영농단 등 200여 명이 모내기에 참여했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모내기 체험은 학생들이 준비한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이앙기 등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 방식인 손으로 직접 모를 심었으며, 학생들은 벼가 자라는 생육 과정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순천만 생태학습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모내기 후, 논과 논두렁에 사는 동물들을 조사하고, 벼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잡초 제거, 논우렁이를 눈에 넣

어주는 등 친환경 재배 관리를 체험했다. 강기만 인안초 교장은 “활동을 위해 찾아온 흑두루미의 먹이 벼 생산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학생들이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순천만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인안초는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를 ‘가고 싶고, 찾아오는 지속 가능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2009년부터 흑두루미 논 가꾸기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순천시와 협약을 통해 무상제공 받은 논 1025㎡에서 매년 친환경 농사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